

Ethan Levitas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YORK

Rahul Alexander



[브뤼트]

ISSN 2005-985X

new artists. new world

vol. 005 2009 10

TOKYO

Hamada Britney

Boom Boom Satellites

JAPAN

ANTWERP

Dennis Tyfus

Baptist Coelho

BELGIUM

MUMBAI

INDIA

STOCKHOLM

SWEDEN

Erica Jacobson

Marina Faust

PARIS

FRANCE

Nadine Jarvis

LONDON

UNITED KINGDOM

Jaana Jatyri

KT&G 삼성미술이 발행하는 월간 매거진 (브뤼트)

BAPTIST

미디어 아티스트 밥티스트 코엘료

글. 박루니, 여행칼럼니스트

인도에서 32세 청년 작가 밥티스트 코엘료 Baptist Coelho에게 '떠오르는 작가' 같은 상을 연거푸 주어가며 칭찬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유학파답게 세련되고 신선하니까. 영국 버밍엄에서 예술 석사 과정을 마친 코엘료는 비디오, 설치, 음향, 퍼포먼스, 사진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로 작업을 한다. 인도 내에서 꽤 많은 현대 미술 갤러리 거의 전부에서 그룹전과 개인전을 치렀다. 인도의 예술계는 그를 뉴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부르고,

투자자들은 그의 작품을 사두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같음'에 있다. 실은 코엘료는 아티스트로 활동하기 전에 광고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전에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06년이었어요. 사진 다큐멘터리 작업에 참여하며 별 찍을지 어떻게 할지 고민했죠. 광고 일을 하면서 일상에 억눌려 있던 제가 그때처럼 흥분해본 건 오랜만이었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깨달았죠." 많이

들던 소리다. 누구나 주위에 입만 열면 신세타령하거나,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길에 오르는 친구들이 한둘은 꼭 있다. 코엘료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다. 그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다. 먹고살기 위해 회사도 다녀왔지만 성격에 맞지 않아 그만뒀다. 유학에서 돌아와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인도 이곳저곳을 여행했다. 데뷔(?)한 지 3년 동안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작업과 전시를 하기는 쉽지 않다. 용기도 있고 재주도 있다.

물론, 갤러리 좀 기웃거리봤다면 그의 작품을 독창적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한 청년을 둘러싼 시간과 공간을 가늠하게 한다. 동시에 나를 둘러싼 시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인도라는 나라와 문화를 시바 신, 요가, 바라나시를 들먹이지 않고 명쾌하게 표현한다. 예컨대, 그의 2분짜리 비디오 작업 <다리 꼬기 Cross-legged>를 보자. 인도에선 다리를 꼬고 앉는 행위가 여자에게만 허용된다는 문화적 통념을 절묘하게 포착했다. 뻔하지

COELHO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어디에나 그와 같은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코엘료는 천재는 아니다. 그래도 별걱정 없는 듯하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그는 이번 9월부터 스위스 바덴에 자리한 아티스트 레지던스에 머물고 작업한다고 한다.

나, 코엘료를 설명하는 다섯 개의 단어

1. 종이비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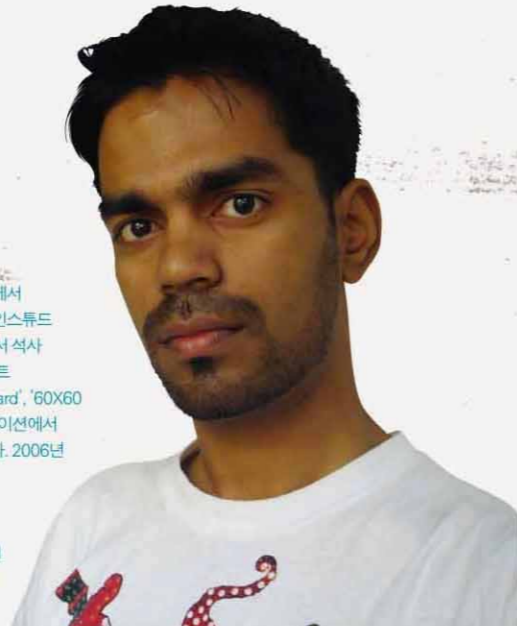
"어릴 때 장난감을 갖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요. 상점에 멋지게 진열된 녀석들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 제손으로 장난감을 만들어 놀았어요. 특히 종이비행기를 많이 접었죠. 돌이켜 보면, 종이비행기는 다른 어떤 장난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즐거움을 주었어요. 동시에, 종이를 접는 단순한 행동이 아이들이 놀고 싶고 배우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상징이라는 사실도요. 설치 작업 <Finally Found My Room Full of Toys, 2009>는 그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창조력을

반영했어요. 종이비행기들을 늘어놓은 공간에는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는 소리들이 들리지요. 관객 역시 어린 시절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교하지도 않고 망가지기도 쉽지만, 종이비행기는 요즘 장난감들과는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상상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요."(그는 2008년 뭘바이, 라닥에서 어린이들과 종이비행기를 함께 접는 <종이비행기 접기 프로젝트 Paper Airplane Project>를 진행하기도 했다.)

2. 클림트, 안드레이 구르스키, 제프 월 "클림트Klimt의 에로티시즘, 여러 장르에서 영향을 받아 자기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능력에 감탄했지요. 제 설치 작업 <The Jungfrau - 3D(2006)>는 클림트의 <Die Jungfrau> 트리뷰트로 만들어졌어요. 알루미늄 수송관을 이어 붙여, 2차원의 그림을 3차원으로 표현했어요. 뭘바이의 정경을 공중에서 내려다본 <View, 2007> 시리즈는 안드레이 구르스키Andrea

밥티스트 코엘료
1977년생. 인도 뭘바이 라헨자 예술대학에서 사진 전공 후 영국 버밍엄 아트 앤 디자인 인스티튜드 Birmingham Institute of Art & Design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인디아 비주얼 아트 갤러리에서 선정한 'Promising Artist Award', '60X60 Secs' 액션 상금을, 인도 현대 미술 파운데이션에서 선정한 'Emerging Artist Award'를 받았다. 2006년 영국 버밍엄 BIAD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air(edge)air>를, 2009년 뭘리 인디아 헤비타트 센터의 비주얼 아트 갤러리와 뭘바이의 프로젝트 88에서 두 번째 개인전 <You can't afford to have emotions out there...>을 열었다.





Gursky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풍경도 새로운 각도로 보면 숨을 멈추게 만드는 장관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 배웠지요. 아참, 제프 월(Jeff Wall)도 좋아합니다. 비디오 작업 <Cross-Legged(2008)>에서 그로부터 받은 영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짓는 제스처가 실은 사회적 통념에 바탕을 둔다는 사실을요.”

3. 공기, 그리고 첫 번째 개인전
“만약 공기가 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 비디오 작업 <On the Edge #1, 2006>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뽀족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상상입니다만, 끔찍하지요. 안 보여서 그렇지 공해를 먹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네, 영국에서 치른 제 첫 번째 개인전은 공기가 주제입니다. 공기는 세상을 이루는 4대 원소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제게는 환경, 사회, 그리고 개인의 가치들을 표현하는 도구죠. 공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연상시켜요. 둘 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죠.

존재한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아주 잠깐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움직임으로 존재를 확인하죠. 비디오 작업 <Four Attempts to Understand Static and Dynamic Air, 2006>은 바로 그 점에 착안해서 만들었어요. 잠시 공기를 볼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해 공기는 남성용, 흔들리는 여성의 머리칼은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은유하죠. 이런 이미지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비디오 작업 <FIRST ATTEMPT

TO UNDERSTAND BREATHING SPACE, 2007>는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기계를 파는 세일즈맨의 에피소드예요. 제가 광고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4. 뭄바이
“뭄바이는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도시 중 하나지요. 1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좁은 지역에 모여 살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고,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컨대, 창문을 열면 맞은편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공간은 부족하고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건물들에서 다닥다닥 붙어살기 때문이죠. 사진 작업인 <Neighbour, 2008>은 도시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을 포착한 거죠. 앞으로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같은 주제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뭄바이의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2008년 11월 26일의 비극(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뭄바이 테러사건)도 벌써 잊혔지요. 과거의 고통이나 아픔을 빨리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는 우리의 욕망 때문이지요. 카페트 밑에 대충 신문지들을 숨겨놓은 설치 작업 <Remind The Forgotten, 2009>는 미디어의 영향력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의 상징입니다.”

5. 인도 여행, 그리고 개인전
“얼마 전 라다크를 다녀왔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인 시아첸방하(Siachen Glacier)의 군사지역에서 머물렀지요.

인도의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3개월 간 국경에서 근무해야 해요. 그들 중 일부는 적의 총알이 아니라,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많은 군인은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번 개인전 <You Can't Afford To Have Emotions Out There, 2009>는 극도의 상황에서 애국심이라는 거대한 대의명분에 의지해 살아가는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겪어야 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은 지도에 존재하는 국경선 때문이죠. 군인들은 주권의 상징을 사수한다는 목적으로 희생되고, 군복을 입은 죄수이자 꼭두각시죠. 군인들도 사람이고, 군복을 벗으면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일 뿐인데 말이예요.”

